



국회의원 김 한 표

보 도 자 료

경남 거제시
2013. 10. 13(일)
산업통상자원위원회
운영위원회

[국회]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6호 Tel.02)784-4760~2 Fax.02)788-0170
[거제] 경남 거제시 고현동 961-21번지 명성빌딩 4층 Tel.055)632-7822 Fax.055)638-4553
담당 : 박재성보좌관(010-6363-2802)

김한표 의원, 지난해 아내 때려 입건된 폭력남편 6천건 육박 - 가정폭력 3건 중 2건은 서울·경기·인천서 발생 -

- 지난해 아내에 대한 폭력행사 혹은 학대행위로 입건된 ‘폭력남편’ 건수가 6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(경남 거제시, 새누리당 원내부대표)이 13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‘가정폭력 관련 현황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내를 학대해 붙잡힌 경우는 5천876건에 달했다.
- 지난 2004년 1만1천487건이었던 아내학대 검거 건수는 2007년 9천117건, 2011년에는 4천481건으로 줄곧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.
- 남편학대로 인한 아내 검거 건수는 작년 한해 278건이었다.
- 또 작년에 발생한 총 가정폭력 건수는 8천762건이었으며,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천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천464건, 인천이 542건 순으로 나타났다.
- 우리나라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이들 세 지역의 인구비는 약 49%인 반면 가정폭력 발생 비율은 68.8%에 달했다.
- 김 의원은 “경기불황에 따른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폭력남편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” 며 “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” 고 지적했다.